

주간

주요 베트남비즈니스 정보

Contents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베트남기업 동향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III. 베트남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프로젝트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한국감정원, 베트남 토지행정청과 부동산 가격공시 MOU 체결
- ▶ LS전선 베트남법인 국내 상장 추진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필리핀·베트남, 미국·일본과 남중국해 '연대' 강화
- ▶ FDI(외국인 직접투자) 한국의 투자 규모 가장 크다.
- ▶ 베트남, 외국으로부터의 농업 직접 투자 확대 2030년까지 누계 60억 달러 목표
- ▶ 일본 스미토모 상사가 베트남에서 공업 단지 개발에 합의

◆ 베트남기업 동향

- ▶ 베트남 투자개발 은행(BIDV), 메콩 델타 주택개발 은행(MHB)과 합병
- ▶ 국가 자본 100% 기업, 전환 및 구조조정 시 자산 및 부채 처리규정 발표
- ▶ 연초 5개월간, 해산·활동 중단 업체 전년 동기 대비 ▲ 0.5% 줄어든 3884개사
- ▶ 라오스 국제 공항, 베트남 기업이 지원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 ▶ "베트남 국영기업 몸집, GDP 의 80%...경제활력 발목"
- ▶ 작년 대비 베트남 총 수출입액 13.6% 증가
- ▶ 동나이(Đồng Nai) 성에, 물류(Logistics) 운송보관 센터 개장
- ▶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 ▶ 산업생산 3년 만에 최대 증가
- ▶ 타이 응웬(Thái Nguyên), 3만명 직원 수용 가능한 주거지구 건설
- ▶ 수출입 화물 통관수속 우대조치 적용위한 시행규칙 제정
-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출에 대한 안내
- ▶ 유라시아 경제 연합 베트남과 첫 FTA 체결, ASEAN의 현관 역할 기대
- ▶ 재무성 자동차 특별 소비세의 새로운 산정 방식 내정, 가격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워



III. 베트남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프로젝트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한국진출기업 동향

한국감정원, 베트남 토지행정청과 부동산 가격공시 MOU 체결

- 한국감정원은 지난 1 일 베트남에서 베트남 자원환경부 토지행정청과 부동산 관리분야 협력 MOU 를 체결하고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2 일 밝힘
- MOU 체결에 앞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을 만난 베트남 자원환경부 트란홍하 차관은 2013 년 베트남 토지법 개정 이후 토지가격 공시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면 한국의 선진화된 기법과 시스템을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함
- 한국감정원은 이번 두 기관간 MOU 로 부동산관리를 위한 지가산정 및 토지가격정보시스템 분야에서 두 기관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설명함
- MOU 체결 후 진행된 전문가 회의에서 한국감정원에서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정보시스템’을,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의 토지배분기준, 토지사용료 및 임대료의 부과기준과 방법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돼 두 기관의 전문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짐
- 서종대 원장은 “이번 베트남과의 부동산 관리분야 MOU 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부동산 관리분야의 조사·연구 및 정보운영 체계를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공기업으로서 개발도상국의 부동산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선진국 전문기관과의 교류확대를 통해서 세계적인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발돋움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출처: Etoday.co.kr, 06.02

LS전선 베트남법인 국내 상장 추진

- LS 전선이 베트남 현지 법인의 국내 상장을 추진하고 있음. LS 전선은 베트남 현지 자회사들인 LS-VINA 와 LSCV 를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5 일 밝힘
- LS 전선은 베트남 현지의 2 개 회사를 국내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한꺼번에 상장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짐



- LS-VINA 와 LSCV 는 전력·통신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으며 양사가 작년 4000 억원가량의 매출액을 기록함
- 이번 상장이 이뤄지면 해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현지 법인이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진입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 * 출처: Etoday.co.kr, 06.05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필리핀·베트남, 미국·일본과 남중국해 '연대' 강화

- 남중국해 영유권 공세를 강화하는 중국에 맞서 군사력을 키우려는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의 발걸음이 바빠
- 미국과 일본을 우군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방위 장비를 지원받아 중국에 대한 견제 카드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임
-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재임 중 처음으로 일본을 국빈 방문해 나흘간 머물며 다방면에 걸친 일본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함
- 관심을 끄는 것은 4일 예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다. 이 자리에서 남중국해 분쟁 대처를 위한 폭넓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두 정상은 일본이 P3C 초계기와 레이더 장비를 필리핀에 지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위한 교섭에 나서기로 하는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함
-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와 이같은 협정의 교섭 개시에 지난달 25일 합의함
- 필리핀과 베트남은 지난 5월 각각 일본과 남중국해 인근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벌이기도 함
- 군사·경제 패권 강화에 나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진 것으로, 일본은 자위대의 활동 무대 확장이라는 효과도 거두고 있음. 베트남은 미국의 군사력 지원 필요성을 감추지 않고 있음



- 풍 팡 타잉 베트남 국방장관은 1 일 하노이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방위협력을 위한 공동 성명에 서명하고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살상무기 금수조치 완전 해제를 인권 문제와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카터 장관은 이에 명확한 답변은 안 했지만 베트남이 미국제 순시정을 구매하는 데 1 천 800 만 달러(200 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힘
 - 베트남 언론은 "카터 장관 일행이 베트남군 당국의 환영을 받았다"며 미국의 순시정 구매 지원 계획을 주요 기사로 소개하는 등 두 나라의 군사협력 증진을 전망함
- * 출처: Yonhapnews, 06.02

FDI(외국인 직접투자) 한국의 투자 규모 가장 크다

- 베트남 계획투자부 산하 외국인투자국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5 개월간 베트남에 등록된 외국인 직접투자(FDI) 자본금액(신규 등록자본금과 자본금 증자를 포함)은 42 억 9 천만 달러(USD)로 2014 년 동기 대비 78% 수준에 머물렀음
- 또한 금년 상반기 5 개월간 외국인직접투자 실행 자본금은 49 억 5 천만 달러에 달해 지난해 동기대비 7.6% 증가함
- 지난 5 월 20 일까지 신규 등록한 FDI 프로젝트 수는 592 건이고 신규 등록금액은 29 억 5 천만 달러로 2014 년 동기 대비 72.9% 수준에 불과했고 기존 프로젝트 중에서 자본이 증액된 건수는 210 건, 자본 증자금액은 13 억 4 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0.6% 수준임
- 투자 업종별로 볼 때 가공 산업 및 제조 산업이 외국인 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해 신규 등록 건수는 269 건, 증자건수 142 건으로 신규 등록과 증자를 포함한 외자 유치금액은 31 억 5 천만 달러에 달해 총 유치금액의 73.4%를 차지함
- 그 다음으로 부동산업은 신규 등록 10 건과 증자 7 건을 포함한 4 억 6 천 150 만 달러의 FDI 자본금을 유치하여 총 유치금액의 10.7%를 차지했다. 소매 도매업과 수리업 분야는 2 억 3 천 412 만 달러(신규등록 92 건, 증자 19 건 포함)의 FDI 자본금을 유치함
-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한국으로 11 억 달러를 투자해 베트남 전체 FDI 금액의 25.7%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영국령 버진(Virgin)군도는 6 억 6 천 324 만 달러, 터키는 6 억 6 천 20 만 달러를 투자함



- 한편, FDI 유치를 지방별로 보면 FDI 유치 순위 1 위를 차지하는 호찌민시는 9억 8천 350만 달러(신규 등록과 증자를 포함)를 유치해 전체 FDI 금액의 22.9%를 차지함
 - 동나이(Đồng Nai)성은 9억 4천 870만 달러(신규 등록과 증자를 포함)를 유치하여 2위를 차지했고 3위의 하이퐁(Hải Phòng)시는 3억 1천 930만 달러(신규 등록과 증자를 포함)를 유치함
 - 또한 지역별 FDI 유치를 보면 베트남 동남부는 신규 등록과 증자를 포함한 22억 9천만 달러의 FDI 자본금을 유치하는 등 총 유치금액의 53.3%를 차지해 FDI를 가장 많이 유치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부고원 (Tây Nguyên) 지방은 지난 5개월 동안 1천 743만 달러(총 유치금액의 0.4%를 차지)만 유치함
- * 출처: Cvnpost.com, 05.30

베트남, 외국으로부터의 농업 직접 투자 확대 2030년까지 누계 60억 달러 목표

- 베트남은 농업 분야에 외국에서 직접 투자(FDI)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농업 지역 개발성은 이 분야의 FDI 금액을 2020년까지 누계 45억달러, 30년까지 동 60억달러를 목표로 하여, 투자 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는 투자 가속에 주력한다고. 현지 언론 사이공 타임스 등이 보도함
- 이 분야의 FDI는 투자의 수용 개시부터 2014년 말까지의 누계로 34억 3000만달러(512건)였다. 농업은 베트남 경제의 버팀목으로 2014년 국내 총생산(GDP)의 약 2할에 해당하며, 수출액은 308억 6000만달러에 이룸
- 한편 이 분야의 FDI는 그동안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3.1%, 금액 기준은 1.4%로 미미함
- 농업·지방 개발성 간부는, 동국에서는 소규모의 농가가 태반을 차지하는 것이나 취약한 농업 인프라 등이 투자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부의 농업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투자 촉진을 위한 대처가 불충분하다고 말함
- 이 분야의 발전에는 FDI 유치 가속은 필수다. 동성은 현재 세계 경제 포럼과 공동으로 농업 분야에 대한 관민 제휴(PPP)방식의 활용을 위한 프레임 워크 작성에



임하고 있어 향후, PPP 방식에 의한 외자 유치를 가속시키고 싶다고 한다.또 이 분야의 FDI 강화를 위한 투자 우대 조치 등을 담은 투자 촉진 방안을 6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할 전망이다

* 출처: Vinhanin.com, 06.02

일본 스미토모 상사가 베트남에서 공업 단지 개발에 합의

○ 일본 기업 스미토모 상사(住友商事)는 6월 1일, 베트남의 빈푹(Vinh Phuc) 성과 제 3 탄롱 공업 단지 개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추진했던 해외 공단 개발, 확장을 실시함으로써 해외 공단 사업의 전개를 촉진할 자세를 나타냄

○ 이 회사는 원래,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에서 자사의 공단 개발·판매·운동을 다루고 있으며 태국 캄보디아에서는 대리 운영하고 있으며 공업 단지 유치 실적도 약 360 개에 이릅니다

○ 이번, 스미토모 상사와 빈푹 성의 합의로 개발 개시가 결정된 제 3 탄롱 공단은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 북쪽에 위치. 하노이 근교의 공항인 노이바이 국제 공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20 킬로미터에 위치하고 있음

○ 이 공업 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스미토모 상사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개발 면적은 200 헥타르에 이릅니다

○ 이 회사는 아울러 "총사업비는 약 150 억엔을 예정하고 있으며, 일본계 제조업 등의 신장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18년 개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출처: Vinhanin.com, 06.02

◆ 베트남기업 동향

베트남 투자개발 은행(BIDV), 메콩 델타 주택개발 은행(MHB)과 합병



- 베트남 투자개발 은행(BIDV)과 메콩 델타 주택개발 은행(MHB 뱅크)은 지난 5월 25일 양자의 합병에 관한 회의록에 서명함
 - 이번 서명은 베트남 투자개발 은행(BIDV)이 메콩 델타 주택개발 은행(MHB)과의 공식합병을 위한 마지막 법적 절차임
 - 이에 따라 기존 MHB 은행의 지점들은 2015년 5월 25일부터 BIDV 은행 지점의 명의로 운영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2일 0시부터 MHB 은행의 본점, 전국 44개 지점과 187개 거래소들이 활동을 중단하고 BIDV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교체함
 - MHB 은행과의 합병을 완료함으로써 BIDV 은행은 ‘금융기관 구조조정’ 제안(2단계)에 따른 목표를 제일 먼저 완성한 은행이 됨
 - 투자개발 은행(BIDV)의 판득뚜(Phan Đức Tú) 은행장은 합병 후 BIDV 은행의 총 자산은 700조 동(VND)이상이고 법정 자본금은 34조 동에 이르게 되었으며 2만 4,000명의 종업원과 약 1,000여개의 거래점을 포함한 대규모 거래망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힘
 - 투자개발 은행의 쩌박하(Trần Bắc Hà) 은행 의장은 “BIDV 은행과 MHB 은행의 합병은 정부의 지도에 따라 금융기관 구조조정(2011 - 2015년 단계) 제안을 실현하는 동시에 은행의 자산규모 증대, 거래망 확대, 능력향상 등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내에서 선두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 강조함
- * 출처: Cvnpost.com, 05.30

국가 자본 100% 기업, 전환 및 구조조정 시 자산 및 부채 처리규정 발표

- 최근 베트남 재무부는 국가 자본 100% 기업(국가가 법정자본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전환이나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기업의 부채와 불용자산(전환대상 기업이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자산) 처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이에 따라 베트남 재무부 산하 부실채권 정리기관(DATC/Debt and Asset Trading Corporation)은 현행규정과 당사의 정관 및 재정 규정에 따라 자산인수와 부채처리를 진행한다. 자산이 토지사용권인 경우에 대해서도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 회계장부에 반영하는 자산가치(채무보증 담보 제공 자산 포함)가 1 억 동(VND) 이상인 자산에 대해 부실채권 정리기관(DATC)은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규정에 따라 경매를 통해 자산을 매각함
- 회계장부에 반영하는 자산가치가 1 억 동(VND)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도 부실채권 정리기관(DATC)은 자산매각 시 경매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시장가격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합의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한편, 재무부의 통지에는 부채처리와 불용자산 매각으로 인한 금액 사용에 대한 규정 사항들이 포함함
- 이에 따르면 채권회수 금액 및 자산매각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사용함. 부실채권 정리기관(DATC)은 자산평가비용, 경매비용 등 관련비용 지급을 위해 채권회수 금액 및 자산매각 금액의 30%를 사용한다. 또한 전환대상 기업이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관리비용, 자산보관비용, 채권회수 대행 수수료 등 관련비용 지급을 위해 채권회수 금액 및 자산매각 금액의 10%를 사용함
- 나머지는 기업구조조정 기금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펀드’에 납부해야 함
- 부실채권 정리기관(DATC)은 규정에 따라 채권회수 금액 및 자산매각 금액의 30%를 사용했지만, 관련비용을 다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정부총리의 지도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또한 부실채권 정리기관(DATC)은 2015 년 7 월 1 일 전에 전환대상 기업이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채권회수 금액 및 자산매각 금액의 20%만 사용할 수 있음. 위 재무부의 통지는 오는 7 월 1 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짐

* 출처: Cvnpost.com, 05.30

연초 5개월간, 해산·활동 중단 업체 전년 동기 대비 ▲ 0.5% 줄어든 3884개사

- 베트남 통계 총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 년 연초 5 개월간에 해산이나 활동을 중단한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 0.5% 줄어든 3884 개로 해산·활동 중단한 기업을 형태별로 보면 1384 개사가 1 인 유한 회사, 1068 개가 2 인 이상 유한 회사, 849 개사가 개인 기업, 583 개사가 주식 회사임



- 연초 5 개월간 사업 정지한 기업은 동 ▲ 5.3%감소의 2 만 2705 개. 형태별로는 7924 개가 1 인 유한 회사, 7518 개가 2 인 이상 유한 회사, 3910 개가 주식 회사, 3353 회사가 개인 기업으로 해산·사업 정지한 기업 중 9 할 남짓, 등록 자본금이 100 억 VND 미만의 소규모 기업임
 - 또 경기 회복 추세에서 투자 기회가 확대되면서 연초 5 개월간에 사업을 재개한 기업이 동 +5.9%로 7404 개사임
 - 또 연초 5 개월간에 전국에서 신규 설립된 기업은 동 +15.5% 늘어난 3 만 6055 개사로 등록 자본금의 합계는 동 26.3% 늘어난 219 조 3000 억 VND 임
- * 출처: Vinhanin.com, 06.03

라오스 국제 공항, 베트남 기업이 지원

- 베트남 Trương Tấn Sang 국가 주석은 5 월 30 일 라오스 Choummaly Sayasone 국가 주석 겸 당 서기장의 초청을 받아 Attapeu 에서 Attapeu 국제 공항의 낙성·인도식에 참석함
 - 이 공항은 베트남 호황 자라이 그룹(HAGL)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면적 235.75ha, 투자 총액 3,800 만달러, BT(건설 및 이전)방식으로 건설됨
 - 제 1 기에 ATR72, Fokker 70 같은 비행기, 제 2 기 에어 버스 A320, A321, A300 등의 중형기가 취항할 예정임
 - 건설로 부터 약 2 년에 제 1 기 완성, 설계에서 시공, 시공 물자, 설비에 이르는 전 공정을 베트남 기업이 담당함
- * 출처: Vinhanin.com, 06.02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베트남 국영기업 몸집, GDP의 80%...경제활력 발목"



- 베트남에서 국영 기업들의 비대한 몸집이 경제 활력 저해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지만, 민영화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31 일 베트남소리의방송(VOV)에 따르면 베트남의 싱크탱크인 경제관리중앙연구소(CIEM)는 국영 기업들의 전체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80%에 해당하는 1 천 296 억 달러(144 조 원)로 집계함
- 이 같은 국영기업들의 GDP 대비 자산 규모는 남미 6%, 아시아 8%,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15% 등을 크게 웃도는 것임
- 베트남 국영 기업들의 덩치가 큰 것은 전력, 석유 등 주요 시장을 지배하며 자금 조달이나 사업부지 확보 등에서 특혜를 누려왔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 기업들의 신규 진출을 어렵게 하며 국영 기업들의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경제 경쟁력 제고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올해 민영화 대상으로 정한 289 개 국영 기업 가운데 1 분기에 29 개 기업의 주식을 파는 데 그쳤고 이 또한 대부분 지배 지분이 아닌 소수 지분 매각임
- 베트남 정부는 민영화에 외국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고 있으나 국영 기업들의 누적된 방만 경영, 회계 투명성 문제 탓에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
- 응웬 딘 쑹 CIEM 소장은 "국영 기업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면서도 "이 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출처: Yonhapnews, 05.31

작년 대비 베트남 총 수출입액 13.6% 증가

- 세관 총국은 2015 년 5 월 15 일까지 베트남의 총 수출입액은 1,158 억 7000 만 달러를 기록해 작년 대비 13.6% 상승했다고 밝힘
- 수출 부분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생산품 수출액이 약 63 억 2000 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달 같은 기간 보다 9.6% 감소세를 보임
- 하지만 1 월부터 5 월 15 일까지 같은 기간의 작년 총 수출액 보다 44 억 3 천만 달러 상승한 560 억 9 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8.6% 상승했다고 밝힘



- 4 월 초부터 4 월 중순까지의 총 수출액 및 품목별 수치를 4 월 중순부터 4 월 말까지와 비교 해보면 몇 가지 품목에서 감소를 보이고 있음
 - 휴대 전화기 및 부품 약 2 억 6 천 4 백만 달러, 원유 920 만 달러, 섬유 및 의류 840 만 달러, 목재 제품 수출 400 만 달러, 과일과 야채 수출 380 만 달러 감소 등임
 - 또 같은 시기의 상품 수출 기업은 FDI(해외 직접 투자)감소로 43 억 달러의 감소를 보였고 4 월 중순부터 4 월 말 기간을 비교해 보면 9.6% 하향세를 보였다고 밝힘
 - 이러한 감소는 4 월 중순부터 4 월말까지의 기간 동안의 국가 수출 총액 68%에 해당함
 - 수입 부분에서는 해외 상품 수입이 5 월초부터 5 월 중순까지 81 억 9 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러한 수치는 4 월 중순부터 4 월 말까지에 비해 34.6% 상승된 수치임
 - 1 월부터 5 월 15 일까지의 총 수입액은 약 597 억 8000 만 달러로 작년보다 18.7% 상승함
 - 구체적으로는 기계와 설비, 공구, 부품 수입이 4 억 2800 만 달러, 컴퓨터, 전자기기, 부속 수입이 3 억 1400 만 달러, 각종 직물 2 억 1500 만 달러, 플라스틱 원재료 수입 1 억 2600 만 달러, 각종 철강 수입에 1 억 6 백만 달러가 상승함
 - 상품 수입 기업들의 FDI 상승으로 5 월 15 일까지 보면 약 49 억 달러 상승했고 지난달 4 월 중순부 4 월 말보다 41.2%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4 월 중순부터 4 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의 국가 수출 총액 60%에 해당함
 - 또한 무역수지는 5 월 초부터 5 월 중순까지 18 억 7 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5 월 중순부터 5 월 말까지의 무역수지는 조금 상승한 37 억 달러 라고 밝힘
- * 출처: Cvnpost.com, 05.30

동나이(Đông Nai) 성에, 물류(Logistics) 운송보관 센터 개장

- 동나이 (Đông Nai) 성 년 짜익 (Nhơn Trạch) 현 에 위치한 년 짜익 제 3 공업 단지의 산큐 (Sankyu) 베트남 유한 책임 회사 (일본 산큐 그룹 소속) 는 지난 26 일 총 1200 만 달러 를 투자 한 물류 (Logistics) 운송 보관 센터 를 개장 함
- 이 운송 보관 센터 의 총 면적 은 2 만 m² 로 창고 관리 서비스 와, 창고 임대 서비스 를 제공 함



- 지난 몇 년의 조사 결과 산큐 그룹은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창고, 물류 보관 시장은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투자지로서 매우 안정적인 주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동나이성을 선택했다고 밝힘
 - 물류 운송 보관 센터는 많은 지역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며 동나이성의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짐
 - 2007년 지난 베트남에 진출한 산큐 그룹은 물류 관련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현재 물류 서비스, 기계 및 장비 정비, 전문적인 업무 지원 등의 세 분야에서 활동 중임
 - 동나이성 공업 단지는 일본 기업들로부터 총 185개의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했고 총 등록 자본 금액은 34억 달러에 달한다. 일본은 동나이성에 투자한 40개국 중 투자 순위 3위를 차지하고 있음
- * 출처: Cvnpost.com, 05.30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 베트남 통계청은 지난 5월 24일 5월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16% 상승했고 전년 동기대비 0.95% 상승해 2015년 상반기 5개월의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0.83% 상승했다고 발표함
- 통계청 산하 물가통계국의 도빅응옥(Đỗ Bích Ngọc)부국장은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11% 인상된 휘발유 가격(5월 5일에 휘발유가격은 1리터 당 1,950 VND 인상했음)을 지목했다. 휘발유가격 인상은 5월 CPI 상승에 약 0.08% 기여함
- 또 상공부가(2015/3/12일자, 2256/QĐ-BCT 호 결정) 지난 3월 16일 전기요금을 7.5% 인상했음에도 무더위로 인한 전력 소비량이 증가해 5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0.11% 정도 인상시킴
- 5월 CPI를 구성하는 11개 품목(제품 군 또는 서비스 군) 중에서 7개 품목의 지수가 상승했다. 이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주택-건설자재’ (+1.27%)이고, 이어 ‘교통’ (+1.02%), ‘관광-엔터테인먼트’ (+0.39%), ‘설비와 가정용품’ (+0.13%) 등이다.



한편 ‘의약품-의료 서비스’, ‘원거리통신’과 ‘교육’ 품목의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던 반면 ‘식품-음식 서비스’ 품목의 지수는 0.22% 하락함

○ 그 중 ‘주택-건설자재’ 품목 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이유는 생활용수 요금의 인상(전월 대비 0.4% 증가)과 생활전기 소비량의 증가(전월 대비 4.28% 증가) 때문이고 ‘설비와 가정용품’ 품목 지수 상승은 여름 제품들의 가격인상(에어컨 가격 0.84%, 냉장고 가격 0.5%, 가정용 물펌프 가격 0.13%, 선풍기 가격 0.86% 인상)때문으로 보여 짐

○ 또 ‘교통’ 품목의 지수가 많이 상승한 이유는 주로 휘발유 가격인상과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지난 5월 5일에 실시한 휘발유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기차표 가격이 전월 대비 4.25% 인상했고, 시외버스표 가격이 0.14%, 배표 가격이 1.7% 인상함

○ 그러나 식량과 식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5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0.11% 정도의 인하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가격 인하와 등유가격의 인하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짐

○ 그 외에 중앙은행은 지난 5월 7일부터 은행간 달러화 대비 동화 기준환율(VND/USD)을 2만 1458 동/달러에서 2만 1673 동/달러로 조정함. 이는 1% 평가절하한 것으로 동화 가치를 낮춰 수출을 부양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코어 인플레이션(식량-신선식품, 에너지, 보건서비스, 교육서비스 품목을 제외한 CPI)은 4월 대비 0.14% 상승했고 5월 일반 인플레이션(General Inflation)은 4월 대비 0.16% 상승, 전년 동기대비 2.1% 상승함

○ 도빅응옥(Đỗ Bích Ngọc) 물가통계국 부국장은 지난 5월 20일 6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관련해 휘발유 가격의 인상 조정과 여름 무더위로 인한 전력소비량의 증가로 인해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함

* 출처: Cvnpost.com, 05.30

산업생산 3년 만에 최대 증가

○ 베트남 통계청은 상반기 5개월의 산업생산 지수가 지난해 동기대비 9.2% 증가했다고 밝힘



- 그 중 광공업 생산이 6.3% 증가했고, 제조 가공업은 9.9%, 전력 생산 분야는 10.9%, 용수공급과 폐기물처리 분야는 6.3% 증가해 전체 산업생산 성장률에 각각 1.4%p, 7%p, 0.7%p, 0.1%p 기여함
- 상반기 5개월의 생산지수가 전년 동기대비 많이 증가한 분야는 차량엔진 생산(32% 증가), 섬유(22.8% 증가), 가죽 제품과 가죽 관련제품 생산(21.3% 증가), 전자제품, 컴퓨터와 광학제품 생산(19.6% 증가)임
- 특히 생산지수가 전년 동기대비 많이 증가한 제품은 핸드폰(73.4% 증가), 자동차(62.3% 증가), 텔레비전(37.4% 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방별로 볼 때 전년 동기대비 대폭 상승한 지방은 타이응우옌(Thái Nguyên)성 (256.5% 증가), 꽝나(Quảng Nam)성 (28.5% 증가), 하이퐁(Hải Phòng)시 (15.6% 증가) 등임
- 또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4월 제조가공업 분야의 소비지수가 3월 대비 1%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고 이에 따라 상반기 4개월의 제조가공업 분야의 소비지수가 지난해 동기대비 12.8% 증가함
- 소비지수가 대폭 상승한 부분은 차량엔진 생산(42.1% 증가), 전자제품, 컴퓨터와 광학제품 생산(31.4% 증가), 금속생산(24% 증가), 가죽제품과 가죽 관련제품 생산(15.5% 증가) 등이고 소비지수가 소폭 증가한 분야는 음료수 생산(6% 증가), 의복 생산(5.8% 증가) 등임
- 5월 1일 기준 제조가공업 분야의 재고지수가 지난해 동시점 대비 11.5% 증가했으며 그 중 재고지수가 소폭 증가한 부분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9.2% 증가), 의복 생산(3.8%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재고지수가 대폭 상승한 부분은 음료수 생산(80.1% 증가), 제지 및 제지제품 생산(76.3% 증가) 등임
- 한편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5월 1일 기준 산업기업들에 근무 중인 근로자 수가 전년 동시점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전년 동시점 대비 국영기업들에 근무 중인 근로자 수가 0.9% 증가했고 민영기업들에 근무 중인 근로자 수가 4.5%, 외국인 직접투자기업들에 근무 중인 근로자 수가 10.6% 증가함

* 출처: Cvnpost.com, 05.30



타이 응웬 (Thái Nguyên), 3만 명 직원 수용 가능한 주거지구 건설

- 타이 응웬(Thái Nguyên)성, 포옌(Phổ Yên)현 옌빙 1(Yên Bình) 공업지구의 Vinacapital 그룹과 옌빙 투자발전 주식회사는 5 월 26 일 옌빙 조합 프로젝트의 직원들을 위한 주거지구 개공식이 개최됨
 - 이번 직원용 주거지구 건설 프로젝트 규모는 14 단지의 고층 주택과 총 8,000 호 이상의 집을 건설할 예정으로 각 집의 면적은 평균 45~60m²로 3 만 명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음
 - 이 프로젝트는 35ha 면적에 조성되며, 베트남 협력과 투자 분야의 기업인 Vinacapital 의 투자 펀드에 의해 총 4 조 동의 투자금액으로 실행됨
 - 직원용 주거지구는 사회·기술 인프라를 이용해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한다. 2019 년에 완공되어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옌빙 공업 지구의 직원과 노동자들, 특히 삼성 전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주택 수요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임
 - 더불어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짐
 - 타이응우옌성은 개공식에서 유관 기관과의 강력한 협력을 촉구했고 프로젝트 건설 자원 요소들이 적합한 수준과 기술, 품질을 갖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동시에 각 지역은 홍보활동을 통해 순조롭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도록 지지와 동의를 구함
- * 출처: Cvnpost.com, 05.30

수출입 화물 통관수속 우대조치 적용위한 시행규칙 제정

- 베트남 재무부는 기업들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통관수속 우대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72/2015/TT-BTC 호 시행규칙을 제정함
- 재무부는 이 시행규칙에서 기업들의 수출입 화물 통관수속 우대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



- 시행규칙에서는 수출입 화물 통관수속 우대조치의 적용원칙, 우대조치 적용 대상자의 선발절차, 우대조치 임시중단, 대상자의 선발 권한, 우대조치 임시중단 권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각 기업은 수출입 화물 통관수속 우대조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기업은 통관수속 우대조치 대상자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제출일 기준 최근 2년간 세금 관리규정,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탈세행위, 밀수행위, 불법 화물운송행위 등 법률위반 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세관 행정위반 행위로 인해 관세 지국장급 이상 관리자에 의해 처벌받지 않아야 함
 - 또한 수출입 통관대행사(대리점) 경우에 세관 행정위반으로 인해 관세 지국장급 관리자에 의해 처벌 받은 건수가 통관 신고서의 총수에 대하여 0.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더불어 수출입액이 연간 1 억 달러(USD) 이상을 달성하는 기업, 베트남 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금액이 연간 4 천만 달러 이상을 달성하는 기업, 베트남 내에서 양식 및 재배하는 농수산물의 수출액이 연간 3 천만 달러 이상을 달성하는 기업, 통관 신고서의 총수가 연간 20,000 개 이상인 통관대행사는 통관수속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단, 수출입 금액에 관한 기준들은 과학기술부가 첨단기술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음
 - 정부총리의 승인을 받는 중점 프로젝트의 경우에 대해서는 투자자는 시설물 건설과정에 통관수속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세관총국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부의 72/2015/TT-BTC 호 시행규칙은 오는 6 월 25 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짐
- * 출처: Cvnpost.com, 05.30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출에 대한 안내

- 베트남 중앙은행은 정부총리의 58/2013/QĐ-TTg 호 결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출에 관한 05/2015/TT-NHNN 호 통지를 발표함



- 05/2015/TT-NHNN 호 통지의 적용 대상자는 총리의 58/2013/QĐ-TTg 호 결정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기금, 신용조직법에 따라 설립한 금융기관(대출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받는 중소기업(차용인)을 포함함
- 이 통지에 따라 대출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나 생산운영 방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승인을 받고 보증을 받아야 함
- 대출자(금융기관)는 대출에 관한 현행규정, 이 통지의 규정과 기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는 중소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이나 생산운영 방안에 대하여 대출(베트남 동화로 대출)을 결정함
- 또한 대출자는 중앙은행의 규정과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채권 분류, 대손충당금적립을 진행함
- 한편 이 통지에 의하면 신용계약 체결 전에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대출에 관한 업무협조 합의서 작성 및 서명을 진행해야 함
- 이 업무협조 합의서에는 1) 차용인의 서류 접수 승인에 관한 업무협조 2) 대출자금 인출 증빙서 제출, 대출금 사용, 대출금으로 인해 자산형성, 대출금 상환 등 검사에 관한 업무협조 3) 대출상환기한 조정에 관한 업무협조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또한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과 차용인은 이 통지의 규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거부할 때 대출자가 담보자산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문서로 합의할 수 있음
- 신용보증기금은 신용조직법에 따라 설립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베트남 동화(VND)로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대출담보를 제공하는 비영리 금융기관임. 위 05/2015/TT-NHNN 호 통지는 2015년 6월 18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짐

* 출처: Cvnpost.com, 05.30

유라시아 경제 연합 베트남과 첫 FTA 체결, ASEAN의 현관 역할 기대

- 5월 29일 베트남 Nguyen Tan Dung 수상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의 각국 수상과 함께 베트남과 유라시아 경제 연합과의 자유 무역 협정(FTA)에 서명함



- GDP 총 4 조 5,000 억 달러, 1 억 7,000 만 인구를 가진 시장인 이 경제 연합과 FTA 을 맺은 것은 베트남이 처음으로 이 협정에 양측의 경제 관계 발전을 위한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틀이 만들어짐
 - 29 일 오후 카자흐스탄에서 Dung 수상은,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 빅토르 흐리스텐코 위원장과 회담, 총리는 협정 체결이 양측의 경제 무역 관계를 강하게 촉진하는 획기적인 첫 발걸음이라고 말함
 - 한편 흐리스텐코 위원장은 베트남을 역외 첫 FTA 교섭 체결 국가로 택한 것은 베트남 발전 잠재력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베트남에 이 경제 연합과 ASEAN 의 적극적인 중개 역할을 바란다고 함
- * 출처: Vinhanin.com, 06.02

재무성 자동차 특별 소비세의 새로운 산정 방식 내정, 가격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워

- 베트남 재무성은 2018 년부터 동남아 국가 연합(ASEAN)경제 통합으로 자동차 수입 관세가 제로 인하에 따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수입 차에 붙는 특별 소비세의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짐
- 이로써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지탱하면서 과세 강화로 세입을 늘리겠다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함
- ◇ 2016 년부터 수입 차 가격 인상 예정
 - 내정한 방안에 따르면 관세의 단계적 인하가 시작되는 2016 년 1 월 1 일부터 수입 자동차(CBU)의 과세 대상 가격은 세관에서 가격+수입 관세가 아니라 달러에 넘길 때 값이 됨
 - 재무성이 제창하는 특별 소비세의 새로운 산정 방식이 적용되면 ASEAN 국가에서 수입 차의 소매 가격은 예상대로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오히려 2018 년에 발효하는 물품 무역 협정(ATIGA)에 의한 무관세로 2 년 앞이 되는 2016 년부터 자동차 가격 인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한편 ASEAN 이외의 외국산 자동차 판매 가격도 관세 인하 대상이 아니라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음



○ 이 때문에 재무성에서는 CBU 에 대한 특별 소비세의 새로운 산정 방식이 국내 조립 차(CKD)와 베트남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임

◇ 수입 업자·국내 업체·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도

○ 지금 과세 대상 가격은 CKD 는 딜러의 전달 가격인데 반해 CBU 는 세관에서의 가격으로 이것이 CKD 제품을 불리하게 하고 있음

○ 재무성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CKD 의 과세 계산 방식 변경이 아닌 CBU 에 대한 과세 방식 변경을 함

○ 애널리스트들은 새 방식이 도입되면 CKD 와 CBU 모두에게 공정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재무성은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다른 한편은 새 방식은 국내 업체, 수입 업자, 소비자 모두에 불리하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수입업자는 지금보다 높은 특별 소비세를 지불할 필요가 있고 국내 업체들은 시장 확대를 위한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소비자는 종전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임

* 출처: Vinhanin.com, 05.31



III. 베트남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프로젝트

LIST OF PROJECTS CALLING FOR INVESTMENT
IN HA GIANG PROVINCE, PERIOD 2015

No	Project Name	Location	Investment's Objectives and Scale	Type of Investment
I	Agriculture Sector			
1	Construction of gold beef processing plant (Upland)	Pa Vi Commune, Meo Vac District – Ha Giang Province	Consumption of Cow output of 19 communes in Dong Van and 18 communes in Meo Vac district and communes surrounding areas	100% domestic or foreign ownership
2	Construction of cardamom processing plants	Vi Xuyen District	Processing and preservation of cardamom products	100% domestic or foreign ownership
3	Construction of orange processing plants	Nam Quang Industrial Zone, Bac Giang Province	Processing and preservation of orange products	100% domestic or foreign ownership
II	Infrastructure and Commerce Construction Sector			
4	Construction of Dong Van Town Southern Urban Area	Dong Van Town, Dong Van District	Construction of new style, modern and high quality urban areas	100% domestic or foreign ownership
5	Construction of Dong Van Hotel Complex and Commercial Service (Grade III)	Dong Van Town, Dong Van District	Construction of high quality Hotel Complexes and Commercial services; the expected size: 0.3 hectare	100% domestic or foreign ownership
6	Lung Tien Amusement Park	Phuong Do Commune, Ha Giang City	Construction of high-quality amusement and theme parks; scale land used: 1 hectare	100% domestic or foreign ownership
7	Ho Giang Tourism Region	Phuong Thien Commune, Ha Giang City	Construction of resorts; scale land used: 2 hectares	100% domestic or foreign ownership
III	Boder Gate Economic Development Sector			
8	Construction of Na La Boder Market	Thanh Thuy Commune, Vi Xuyen District	Development of Boder Gate Economic Zone	100% domestic or foreign ownership



9	- Invite to invest in Thanh Thuy International Trade Center Building - 2nd Class Supermarket Projects at Thanh Thuy Gate	Thanh Thuy Commune, Vi Xuyen District	Development of Boder Gate Economic Zone	100% domestic or foreign ownership
IV	<i>The characterized areas of Global Geopark</i>			
10	Dong Van Cultural - Historical Tourism Center	Dong Van Town, Dong Van District	Scale land used 85 hectares	100% domestic or foreign ownership
11	Meo Vac Science-venture and commercial Services Center	Meo Vac Town, Meo Vac District	Scale land used 32,3 hectares	100% domestic or foreign ownership
12	Quan Ba Entertainment and Tourism Center	Quan Ba Town, Quan Ba District	Scale land used 272 hectares	100% domestic or foreign ownership
13	Ecotourism Center - Yen Minh Green Urban Area	Yen Minh Town, Yen Minh District	Scale land used 990 hectares	100% domestic or foreign ownership